

참된 교회와 목회연구

- 청교도들의 묵상과 독서를 중심으로 -

김재훈목사(더함교회)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한 가지 문제는 영적 지식을 계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¹⁾ 이것은 목회사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참된 교회를 추구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서 목회 연구의 지식을 계발에 실패한다면 목회의 성장은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목회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든 시간을 성경을 연구, 묵상, 기도, 삶의 실천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회자의 계발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본 발제에서는 청교도들이 영성 형성을 위해 강조했던 묵상 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통해 영적인 유익을 얻었던 독서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

II. 묵상

청교도들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이행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영성 형성 방법으로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를 꼽았다. 청교도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이 삼결줄이 잘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방법이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잘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다.²⁾ 청교도들이 영성의 방법으로 사용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강조는 많이 있지만 오늘날 묵상이 덜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한 때 기독교 핵심적 훈련의 한 분야로 간주되었던 묵상이 지금은 비성경적인 뉴에이지 영성과 결합되어 있다.³⁾ 또한 중세 신비주의 운동인 관상을 기독교 영성의 한 분야로 소개되고 있으며 QT와 같은 가볍고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묵상이 성도들의 영성 훈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이다.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도 성경의 본문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주석이나 참고 도서를 참조하고 난 후에 깊은 묵상이 없이 말씀 선포와 적용으로 이어진다면 설교가 단순한 지식 전달의 수준에 머물 위험이 있다. 그것은 설교 내용은 설교자의 인식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설교 행위는 설교자의 영적 자질을 뛰어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⁴⁾

1) 죠엘 비키,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 (서울:부흥과 개혁사, 2009), 137-138.

2) 이태복, 193-195.

3) 죠엘 비키, 138.

4) 김남준,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서울:두란노,1995), 137.

김남준 목사는 “설교자들에게서 생사를 건 진지하고 열정적인 말씀 선포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설교자들이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교자들이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없이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기초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⁵⁾ 이런 이유로 청교도들이 묵상을 성경 연구와 기도 사이에 디딤돌 같이 여겼으며 묵회 사역과 영성의 형성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했다.

1. 묵상의 정의와 종류

‘묵상하다(meditate)’ 또는 ‘명상하다(muse)’는 ‘깊이 생각하다’ 또는 ‘반성하다’는 뜻이다. 다윗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시39:3)라고 말했다.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입으로 소리를 내다’는 뜻이다. 이런 식의 묵상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 낮은 소리로 홀로 낭송하는 것을 가리켰다. 성경은 종종 묵상에 대해 언급한다.⁶⁾

청교도들은 묵상을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고정시킴으로써, 청교도들은 행함을 무시하고 명상만 강조하며, 성경의 내용은 무시하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데 몰두하는 거짓 영성이나 신비주의와 같은 부류와 거리를 두었다.⁷⁾ 청교도들은 묵상을 임시적인 묵상과 계획적인 묵상으로 나눴다. 임시적인 묵상은 하늘에 대한 돌발적이며 짧은 묵상으로 언제나 어디서든 어떤 사람들 속에서든 쉽게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셉 홀 주교는 임시적인 묵상은 억제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쉽게 말씀에서 이탈하여 로마 카톨릭 영성의 경우처럼 미신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람의 상상력은 거룩한 말씀에 통제를 받아야한다.⁸⁾ 청교도들은 안셀무스, 로울라의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다른 로마 카톨릭 학자들이 지나치게 복음서 이야기 - 특히 그리스도의 체포와 재판과 고난과 부활 - 를 시각화하여 오감을 통한 상상력의 문을 열어 놓는 것을 경계했다. 청교도들은 성경의 경계를 이탈하지 않고 자유롭게 묵상하는 균형을 가지고 있었다.⁹⁾

가장 중요한 묵상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계획적인 묵상이다. 토마스 화이트는 계획적인 묵상은 네 가지 원천 곧 성경, 기독교의 실천적 진리, 섭리적인 사건(경험), 그리고 설교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계획적인 묵상은 말씀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교리적일 수 있고, 또는 우리의 삶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천적일 수 있다. 토마스 왓슨은 “연구는 진리를 찾아 내는 것이고, 묵상은 진리를 영적으로 진보시키는 것이다. 즉 전자는 금맥을 찾는 것이고 후자는 금을 캐는 것이다”라고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¹⁰⁾

5) 김남준, 140.

6) 이태복, 『이렇게 영성을 형성하라』 (서울:지평서원,2010), 204.

7) 죠엘 비키, 138-139.

8) 창24:6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수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시1: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63:6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9) 죠엘 비키, 139.

10) 죠엘 비키, 141.

11) 죠엘 비키, 143.

12) 죠엘 비키, 144.

2. 묵상의 필요성

청교도들은 묵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명하신다고 말했다. 청교도들은 묵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많은 성경 본문¹³⁾과 사례¹⁴⁾들은 인용한다. 묵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경건하지 못하게 되며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¹⁵⁾

헨리 스쿠더는 "묵상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단순히 머리를 지나쳐 완전히 사라지거나 전혀 소화되지 않은 날 음식처럼 되어 버린다. 날 음식들은 되새김질을 통해서 완전히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되새김질을 하는 피조물에게도 아무런 양식이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묵상은 되새김과 같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모든 외적인 방편들이 묵상을 통하여 완전하게 숙고되고 마음에 쌓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고 했다.¹⁶⁾

토머스 왓슨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진리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햇불과 태양 빛의 차이에 비유했다. 토머스 왓슨은 "지식은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못하지만 묵상은 감정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따스하게 하며 더 거룩하게 만들며 진리속에서 생명을 낳는다"고 말했다. 토머스 맨턴은 '말씀은 묵상에 힘을 주고 묵상은 기도에 힘이 있게 한다'고 묵상이 없으면 기도의 효력이 감소된다고 했다.¹⁷⁾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묵상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다. 어거스틴은 "독서로 찾으며, 기도로 요청하며, 명상으로 발견하고, 묵상으로 소화한다"라고 말했다. 묵상이 없는 연구나 설교문 작성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위에 걸려 있는 음식과 같아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¹⁸⁾

이처럼 청교도들은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묵상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확신했다. 즉, 묵상을 통해서 영성이 풍부하고도 깊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확신했다. 토마스 브룩스는 "가장 탁월하고 감미로우며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¹⁹⁾ 청교도들은 여러 편의 설교를 듣는 것 보다 한편의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것이 더 많은 영적인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함으로 영적인 유익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묵상을 나눔으로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더 풍성할 수 있다. 묵상이 없는 성도의 교제는 피상적이며 세속적인 것들을 나누게 될 것이다.

13) (신6:7, 32:46; 시19:14, 49:3, 63:3, 94:19, 119:11, 15, 23, 28, 93, 99, 145:5; 사1:3; 눅2:19; 4:44; 요 4:24; 엡1:18; 딤후4:13; 히3:1)

14) 멜기세덱, 이삭, 모세, 여호수아, 다윗, 마리아, 바울, 디모테

15) 죠엘 비키, 145.

16) 이태복, 204-205.

17) 죠엘 비키, 146.

18) 찰스 브리지스, 『참된 목회』 (서울:익투스,2011) 308.

19) 이태복, 205.

3. 묵상의 방법

쥘리 비키는 청교도들의 묵상 실천을 위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²⁰⁾

- 1)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묵상을 시작하라. 묵상할 때에 마음을 조절하여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 2)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할 구절이나 교리를 선택하라. 처음에는 비교적 쉬운 주제를 선택하라. 현재 상황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이 될 주제를 선택하라.
- 3) 선택한 구절이나 주제의 내용을 암기함으로써 묵상을 자극하고 신앙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인도의 수단으로 삼으라.
- 4) 우리의 생각을 성경 또는 성경 주제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이상으로 알려고 하지 마라.
- 5) 선택한 주제의 다양한 측면들 곧 제목과 원인, 특징과 결과와 영향 등을 생각할 때, 양심이라는 책, 성경이라는 책, 피조물이라는 책을 활용하라
- 6) 방법이나 규칙 때문에 자유로운 영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조심하라. 성경읽기와 묵상과 기도가 동반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 7) 사랑과 욕구와 소망과 용기와 감사와 열심과 기쁨과 같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자신과 영혼의 대화를 나누라. 자신의 무능력과 단점으로 야기된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갈망을 토설하라.
- 8) 묵상한 내용을 삶에 적용하라. 묵상을 통해서 행할 의무를 찾아내고, 마음으로 누려야 할 위로를 발견하며, 피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라.
- 9) 적용이 결심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라.
- 10) 기도와 감사와 시편 찬송으로 묵상을 끝내라. 묵상을 마친 후에는 너무 빠르게 세상일에 몰두하지 마라.

청교도들은 특별한 시간을 묵상에 활용하도록 권면한다.²¹⁾

- 1) 하나님이 우리 영에 특별한 부흥과 능력을 주실 때
- 2) 고난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시험으로 말미암아 복잡한 심적 혼란에 빠져 있을 때
- 3) 하나님의 사자들이나 죽음에 대해 환기시킬 때, 곧 노년에 이르러서든, 육체가 노쇠해서든 아니면 모종의 죽음의 징후에 의해서든 떠날 때가 그리 멀지 않다고 말해 줄 때
- 4) 설교나 성례를 통해 마음이 감동을 받거나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심판이나 자비나 한 행위를 확인했을 때
- 5) 성찬과 깊은 회개의 시간과 주일과 같이 엄숙한 의무를 시행하기 전이다.

20) 쥘리 비키, 152-158.

21) 쥘리 비키, 149.

청교도들은 묵상은 자주 행해져야한다고 했다. 특히 묵상의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엄수하라고 권면한다. 베이트는 묵상을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끝까지 참는 자가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처음 묵상을 시작할때는 소량의 연기와 작은 불꽃 정도밖에 일으키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거룩한 감정의 불길이 치솟아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불길이 올라갈 때까지 인내하며 묵상하라고 권면한다.²²⁾

청교도들은 묵상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면서도 결코 성경 연구의 중요성을 앞보거나 희생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올바른 묵상이란 반드시 성경 연구에 뿌리를 두어야하며, 성경 연구가 튼실할수록 묵상도 튼실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토마스 왓슨이 성경 연구를 금광을 발굴하는 것과 같고, 묵상은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금을 많이 캐내기 위해서는 먼저 금이 묻혀 있는 금광을 먼저 발견해야한다. 바르고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는 먼저 성경연구를 통해서 묵상의 재료가 될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찾아내야한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묵상의 기술이나 방법을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이고 풍성한 지식을 더욱 강조했다.²³⁾

청교도들은 묵상의 기술보다 성경의 견고한 지식을 더 강조했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교회에서 말씀 묵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큐티(quiet time)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 성경의 배경이나 문맥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한 단어나 문장을 개인적이며 주관적으로 묵상을 하거나 큐티 교재의 본문 해석이나 해설 그리고 예화를 중점으로 묵상함으로써 성경 본문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적용을 넣고 있다. 바른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한다. 그러므로 묵상은 성경읽기와 기도와 분리될 수 없다.

4. 묵상의 주제

청교도들은 성경 본문의 연속으로 묵상하는 것을 물론 다양한 묵상의 주제와 대상과 자료를 제시했다. 개혁파 조직신학의 전통 구분법에 따라서 묵상의 주제를 구분하면,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론, 종말론이다.²⁴⁾ 청교도들은 이런 주제들 가운데 어떤 주제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했다.

존 오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묵상에 따라 은혜의 성장과 쇠퇴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묵상의 주제는 천국 곧 하나님을 깊이 알고 가장 크게 경배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곳, 그리스도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곳 그리고 성도들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 가며 즐거워하는 곳이었을 것이다.²⁵⁾

22) 죠엘 비키, 149.

23) 이태복, 206.

24) 죠엘 비키, 158-161을 참조하면 자세한 목록과 주제의 묵상을 요청한 청교도의 숫자와 조셉 홀이 제시한 묵상해야할 87가지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25) 죠엘 비키, 162.

조나단 에드워즈도 성경을 읽는데서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성경속에 있는 진리, 즉 성경 속에 나타난 교리 전체에 대한 묵상과 탐구를 부지런히 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해마다 내 시간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묵상하는데 사용했다고 했다. 에드워즈는 그의 결심문 28번에서 "성경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깨달고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가자"라고 말했다. 에드워즈의 성숙한 삶은 성경의 교리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 그리고 그 교리에 대한 영적인 감동과 감격으로 인한 끊임없는 회개와 끊임없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루어졌다.²⁶⁾

청교도들은 묵상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성경을 중심으로 삼았다. 윌리엄 브릿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당신의 묵상 가운데 절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청교도들이 성경만 붙들고 묵상한 것은 아니다. 성경외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주는 자연이라는 책과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책망하는 양심이라는 책을 묵상에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묵상의 주교재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다양한 측면에서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부교재일 뿐이다.²⁷⁾

루이스 베일리는 『경건의 실천』에서 아침에 묵상할 내용과 저녁에 묵상할 내용, 주일 아침 교회에 가기 전에 묵상할 내용과 성찬식 전후에 묵상할 내용, 병상에서, 죽음앞에서 묵상할 내용등 삶의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를 매우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조차 그냥 흘려 보내지 말고, 다음 여섯 가지 내용을 묵상하라고 권면한다.²⁸⁾

- 1) 눈을 뜰 때 부활의 날에 대해서 묵상하라.
- 2)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호하셨음을 묵상하라.
- 3) 자명종 소리를 들을 때 마지막 날에 울려 퍼질 나팔 소리를 기억하라
- 4) 그대가 하나님의 엄위하신 임재 앞에 있음을 묵상하라.
- 5) 옷을 입을 때 그대의 영적 수치와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 대해서 묵상하라.
- 6)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새로운지 묵상하라.

청교도들은 묵상하기 좋은 날로 주일을 권면하며 특히 설교를 묵상할 것을 말한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성경과 교리에 대한 깊은 묵상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듣는 청중들이 묵상할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마음이 뜨겁고 흥분되는데 듣고 나올 때는 남는게 없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날 들은 설교의 제목이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재미있거나 감동되는 예화만 기억하고 돌아간다. 설교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내 삶에 말씀을 적용하고 삶에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바로 적용하려고 할때는 율법적인 신앙과 죄책감을 조장하게 된다. 묵상이 없는 설교는 피상적인 신앙과 율법적인 신앙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깊은 묵상을 통해 나온 설교는 지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함으로 감동을 주며 삶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낳게 될 것이다.

26) 백금선,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서울:부흥과개혁사, 2001), 84-87 참조.

27) 이태복, 208-209.

28) 이태복, 212-214.

5. 목상이 주는 유익과 장애물

쥘리 비키는 청교도들이 목상의 유익이나 장점, 효능, 이점, 활용 등에 대한 방대한 글 중에서 그들이 강조한 목상의 유익을 소개한다.²⁹⁾ 여기서는 목상이 주는 유익 중에 몇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1) 목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그 인격들에 따라 지성적으로, 영적으로, 심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도록(요일4:8) 이끈다.

2) 목상은 경건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목상은 "진리의 얼굴에서 수건을 제거한다"(잠4:2)

3) 목상은 우리의 온갖 영적 환란속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의 온갖 외적 시련속에서 섭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확대시킨다.

4) 목상은 회개와 삶의 개혁을 일으킨다

5) 목상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실제적인 유익을 얻도록 돕는다. 목상은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생명과 에너지로 채우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윌리엄 베이츠는 "말씀을 듣는 것을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과 같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과 같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과 같다. 목상을 통해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은 따스한 감정, 강한 결심, 거룩한 행동을 낳는다"

6) 목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시49:3).

청교도 지도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목상의 장애물에 대해 자주 경고했다. 청교도들이 지적한 장애물은 불안정과 또는 무지, 분주함, 영적 무감각, 세속적인 쾌락과 교제, 마음의 거역등을 지적했다. 청교도들은 어떤 것도 목상을 빼먹는 일에 변명이 될 수 없으면 목상을 빼먹는 결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경고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경고가 우리에게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이 우리의 삶에 경건한 열매를 맺지 못하며, 말씀과 성례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영원을 준비하는데 빈약한 이유가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데 있다고 말한다.³⁰⁾ 토머스 브룩스는 "가장 훌륭하고 멋지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판명될 수 있는 자는 가장 잘 읽는 자가 아니라 가장 잘 묵상하는 자"라고 말했다.³¹⁾

6. 청교도의 묵상과 신비주의 영성과 차이점³²⁾

청교도들이 실천한 묵상과 신비주의 영성이 실천하는 묵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물론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은 청교도나 신비주의가 동일하다. 그러나 묵상의 본질과 내용과 방법은 하늘과 땅처럼 멀리 떨어져 있고,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묵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신비주의 영성의 묵상 기술이 개신교의 전통적인 묵상 방법인 것처럼 소개되고 가르쳐지고 있다.

29) 쥘리 비키, 165-167.

30) 쥘리 비키, 170.

31) 쥘리 비키, 168.

32) 이태복, 214-221.

신비주의 영성에서 말하는 묵상을 이해하려면, 성경은 연구하고 묵상하는 방법으로 신비주의 영성가들이 만들어낸 '렉티오 디비나'를 먼저 이해해야한다. '렉티오 디비나'는 소망교회 광선희 원로목사도 최근 설교 부흥 콘퍼런스에서 목회자들에게 '렉티오 디비나' 독서법으로 성경을 읽도록 추천했다. 리젠트 칼리지 영성신학 명예교수인 유진 피터슨 목사도 '이 책을 먹으라'(IVP)는 그의 저서에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³³⁾ 리처드 포스터의 레노바레(관상기도)운동이 새로운 영성 운동을 소개되면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레노바레코리아가 결성되면서 신비주의 영성이 기독교 영성으로 소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렉티오 디비나(lectio Divina)'는 '거룩한 독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이다. 쉽게 풀어 쓰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읽기, 묵상, 기도, 관상 등의 순서를 따라 네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1) 읽기(lectio)

성경 구절을 천천히 읽으라. 마치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연애편지를 읽는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는 경외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대하여 모든 단어와 구절을 음미하라. 어떤 단어나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아 감동이 되고 관심을 끌고 혹은 당신을 괴롭게 할 때까지 본문을 읽으라.

2) 묵상(meditatio)

그 단어나 구절을 몇 분 동안 숙고하라. 그 단어나 구절이 천천히, 그리고 깊이 당신 안으로 스며들도록 하여 그 단어나 구절 안에서 침을 얻도록 하라. 지금 당신의 삶과 관련하여 그 단어나 구절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 당신에게 제공해 주는 것, 또는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으라.

3)기도(oratio)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그 단어나 구절을 체험함으로써 당신 안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감사의 기도도 좋고, 간구의 기도도 좋고, 중보의 기도도 좋고, 탄식의 기도도 좋고, 찬양의 기도도 좋다.

4) 관상(contemplatio)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충만함을 향하여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한동안 마음의 고요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쉬도록 하라. 이것은, 잠자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어린아이를 바라보거나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말 없이 교통하는 것처럼, 침묵 가운데 서로 교통하는 것과 같다.

렉티오 디비나와 청교도의 영성 형성 방법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첫째, 렉티오 디비나의 전체적인 흐름은 마지막 '관상'의 단계만 빼놓고는 청교도들이 실천한 영성의 방법의 전체적인 틀과 똑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청교도들은 기도를 마무리한 다음에 삶으로 뛰어 들어

33) 국민일보 2007년 6월 24일 인터넷 기사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짐했던 선한 결심을 실천한 반면, 렉티오 디비나에서는 기도 다음에 '관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계를 설정해 놓고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쉬고 침묵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신비주의 영성에서는 이 마지막 단계인 관상이 영성의 최고봉으로 강조되었다.

둘째로, 렉티오 디비나의 첫 번째 단계인 '성경 읽기'도 청교도들의 성경 읽기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렉티오 디비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떤 단어나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아 감동이 되고 관심을 끌고 혹은 당신을 괴롭힐 때까지 본문을 읽으라'라고 말한다. 이것을 꼼꼼이 생각해보면, 렉티오 디비나가 처음부터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렉티오 디비나에서는 본문을 연구한다는 것, 즉 본문의 문맥을 살피고 여러 가지 해석을 참고하고 성경 전체와 비교하여 본문의 의미를 찾아내는 모든 작업들이 별 의미가 없다. 그저 본문 가운데 있는 어떤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비주의 영성의 묵상은 성경의 본문을 정확하게 읽고 연구하여 본문의 객관적인 의미를 풍부하게 아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 청교도 묵상과는 매우 다르다.

셋째로, 렉티오 디비나의 '묵상'도 청교도들이 실천한 묵상과는 미묘하게 다르다. 왜냐하면 렉티오 디비나의 묵상은 지성이나 이해력에 의해서 주도되기보다는 감정과 상상력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이다. 신비주의 영성은 그 출발부터 감정과 상상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묵상의 단계에서도 역시 감정과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묵상의 중심이 된 단어나 구절 안에서 우리가 편안한 쉼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청교도들은 묵상의 단계에서부터 이해력을 중심으로 감정과 의지 등 모든 기능이 동원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추론하고 믿고 즐겨워해야 한다고 보았다.

신비주의 영성에서는 상상력이 묵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스페인의 신비주의자인 아빌라의 테레사는 자신의 묵상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내 이해력으로는 묵상할 수 없어서 나는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상상하였다." 테레사의 이 말은 신비주의 영성가들이 영적인 지식을 얻는 통로로서 지성이나 이해력을 불신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지성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도 이 신비주의자들의 대열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묵상은 성경 본문과 친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심정으로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청교도들도 상상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상상력도 인간의 영혼에 주어진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절대로 상상력이 묵상을 주도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성 또는

이해력이 인간의 다른 모든 능력을 주도하여 묵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윌리엄 퍼킨스는 타락 이후에 인간의 상상력이 철저히하고도 지속적으로 악을 향해 기울어진다고 하였고, 상상력이 성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렉티오 디비나의 묵상은 최종 목표가 '관상'이라는 점에서 청교도들이 실천한 묵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청교도들의 묵상의 최종 목표는,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할 의무와 누려야 할 위로와 피해야 할 죄를 알아낸 후에 그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뜨겁게 묵상을 마무리한 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렉티오 디비나에서 묵상의 최종 목표는 '관상'이다. 이때 관상의 가장 큰 특징은 침묵과 쉬이다. 침묵은 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소원과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다. 그리고 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 놓은 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쉬는 것이다. 바로 이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영성의 최고봉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렉티오 디비나는 묵상의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더라도 영성의 최고봉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과감하게 버리고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침묵하는 가운데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신비주의 영성을 따르는 유진 피터슨은 이에 대해 "우리가 성경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경을 분석하고 조직하게 되면 관상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신비주의 영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하고도 견고한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채 감정이나 상상력에 깊이 의존한다. 반면 청교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말씀에 매달렸다. 청교도들은 묵상의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하고, 이리저리 날뛰기 쉬운 우리의 감정이나 상상력이 묵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지성과 이해력이 묵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믿었다.

조엘 비키는 청교도 묵상을 이렇게 정리한다. "청교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묵상이라고 말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묵상을 붙들며 맴으로써, 신비주의의 거짓된 영성과 행보를 달리하였다. 반면 신비주의는 실천을 희생하면서까지 관상을 중시하였고, 성경적인 내용을 희생하면서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III. 독서

참된 교회를 위한 목회 연구의 계발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과 더불어 빼놓지 않아야 할 것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읽는 것이다. 교회사에 탁월한 설교자와 신학자치고 소위 책벌레, 독서광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며, 신앙 성장을 이룬 사람들

은 경건하고 신학적인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오늘날 현대 교회안에서 영적인 난쟁이가 많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부흥의 시대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신앙서적들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했던 것을 교회 역사가 보여준다. 신앙적으로 영적 거인을 가장 많이 배출했던 17세기 영국 청교도들은 "책의 사람들"이었다.³⁴⁾ 목회연구와 신앙성장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진리를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좋은 서적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균형잡힌 독서를 하라.

로이드 존스는 균형적인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서로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입관도 있고, 선호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나면 신학서적만 읽고, 어떤 사람은 철학서적, 심리학 서적만 읽는다. 실제로 다른 분야의 책을 읽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독서의 균형을 잃을 때는 지나치게 이론적이 되거나 학문적이 되거나 객관적이 되거나 지적이 될 위험이 있다. 로이드 존스는 독서의 균형을 잃을 때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형편없는 목회자와 설교자가 되며, 사람들을 돕지 못하며 부름받은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다.³⁵⁾ 그는 목회자가 자신을 위한 균형잡힌 독서 계획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신학서적과 경건서적을 읽는데 균형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에드워즈의 지성이 영성과 균형을 이룰 수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신학서적만 읽는 사람은 머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가슴이 식기 쉽고, 경건서적만 읽는 사람은 가슴은 쉽게 뜨거워지지만 머릿속에 지식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그 귀한 열정이 곧 식어 버리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기가 너무 쉽다.³⁶⁾ 또한 오랜 시간동안 검증되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닌 고전과 새로운 신간을 균형 있게 읽을 필요가 있다. 백금선 복사는 신간 3권에 고전 1권 읽기를 권장한다. 그리고 일반 은총과 특별은총의 영역에서 신앙서적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풍성함을 더 충분히 알기 위해서 일반서적도 함께 읽어야 한다.

2. 한 사람의 스승을 두라.

"남들보다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있었기 때문"이라는 아이작 뉴턴의 말처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영적인 스승을 가지고 있었다. 루터와 칼빈은 어거스틴, 조나단 에드워즈를 스승으로 삼은 로이드 존스와 존 파이퍼, 존 오웬을 스승으로 삼은 제임스 패커등을 들 수 있다.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의 저자인 옥성호는 한 스승을 통한 책 읽기를 통해 스승이 될 사람으로 갖춰야 할 조건을 두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평생을 두고 연구할 수준의 성과물을 낸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스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인도하는 연결점이 되어야 한다.³⁷⁾

34) 백금선, 89.

35) 로이드 존스, 『설교와 설교자』(서울:복있는 사람들, 2007), 276-277.

36) 백금선, 91.

37) 옥성호, 『드디어 스승을 만나다』(서울:부흥과개혁사, 2008), 20-25.

3. 필독서를 읽으라.

스펠전은 독서를 할 때 필독서부터 구입하라고 권면한다. 스펠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책을 여유롭게 로이드 존스는 청교도의 책을 읽을 것을 권면한다. 청교도의 책을 거의 모든 경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가장 좋은 책부터 구입해야한다. 스펠전은 비유로 유유와 물을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농축우유를 사서 취향에 따라 적당히 물을 타서 마시는 요령을 터득하라고 말한다.³⁸⁾

2000년 기독교의 유산을 남겨진 좋은 책들을 중에서 필독서를 찾아내는 것을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책부터 어떻게 읽어야할지 막막할 때가 있다. 로이드 존스는 청교도의 책을 읽을 것을 권면한다. 청교도의 책을 거의 모든 경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³⁹⁾ 그러나 청교도의 책이 방대할 뿐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에 적합한 책을 분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옥성호는 자신의 영적인 스승으로 로이드 존스와 존 맥아더를 소개한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와 맥아더의 사상을 내것으로 소화하기 위한 베이직이 되는 책과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더 깊이 알기 위한 필독서 목록을 소개한다.⁴⁰⁾ 이처럼 친절한 여행 가이드가 있으면 많은 유익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개혁 신학과 참된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 목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늘영광교회 홈페이지 하늘 도서관에 소개된 책들을 첨부하여 소개하면서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 모임의 회원들이 추천하는 도서 목록을 분류해서 분야별로 필독서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다.

IV. 맺은 말

이성호목사는 한국 교회 앞에 놓인 장애물로서 '고령화: 서서히 다가오는 무시 무시한 교회의 적', '저출산: 교회를 덮치는 쓰나미', '양극화: 작은 교회에 퍼부어지는 용단 폭격', '세속화: 교회를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등을 꼽으면서 작은 교회도 이런 문제를 비켜갈 수 없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때 미래를 대비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튼튼히 할 수 있다고 말한다.⁴¹⁾ 또한 목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다.

교회는 각 시대마다 큰 도전들을 받아 왔고 그 도전들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박해를 받던 시대에는 생존이 교회가 담당해야할 중요한 과제였고, 번영하던 시절에는 자신의 신앙을 체계화하고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⁴²⁾

38) 찰스 스펠전, 『스펠전의 목사론』 (서울:부흥과 개혁사,2007) 117.

39) 로이드 존스, 271.

40) 옥성호, 26-48.

41) 이성호, 『바른 목회와 교회 성장 비법은 없다』 (경기:그 책의 사람들,2013) 18-28.

42) 이성호, 32.

1970-1980년대 도시화로 인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들이 1990년대에 일부 대형교회들이 주변의 작은 교회들의 성도를 흡수하면서 수평 이동에 따른 교회 성장이 두드러진 현상이 되었고, 작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주변에 있는 큰 교회가 되었다.⁴³⁾

이런 상황에서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을 위한 수많은 비법 세미나를 다니고 있고, 많은 세미나들은 작은 교회 목사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다. 비법에 넘어간 목회자들이 완전히 그 비법에 빠져서 당장 목회에 적용하지만 실패를 하고 만다. 그 결과 성도들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 첫 번째 비법에 실패한 목회자는 또 다른 비법을 찾고 적용하고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이런 방법은 잠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효과 때문에 비법에서 손을 뗄 수 가 없고 목회자들에게는 마약이 된다. 그러나 작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은 없다. 역사상 교회는 비법을 거부하고 정도에 충실했기 때문에 살아 남을 수 있었다.⁴⁴⁾

이런 의미에서 청교도들은 비법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도를 추구한 사람들이다. 수많은 고난과 박해속에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고,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읽고, 성도간의 영적인 교제를 추구했던 사람들이다.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에도 비법은 없다.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오늘의 현실속에서 참된 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사역은 역사적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앙을 좇아 성경이 말한 교회를 추구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갈망하는 것이다. 청교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사역과 신앙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했던 묵상과 영적인 독서를 통해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얻는 것이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길이다.

43) 이성호, 34.

44) 이성호, 37-41.

하늘영광교회 하늘도서관 추천도서

가정

- 50.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 제임스 W. 알렉산더(임종원 역) /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 137. 하나님의 가정 / 리차드 백스터 / 복있는 사람

경건생활

- 1. 내게는 영원한 의가 있다. / 호라티우스 보나르 (송용자 역) / 지평서원
- 4. 상한 심령으로 서라 / 존 번연(이태복 역) / 지평서원
- 5. 마음, 참된 성도의 마음 / 존 플라벨(이태복 역) / 지평서원
- 6. 꺼져 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 리차드 십스(전용호 역) / 지평서원
- 10. 유사 그리스도인 · 네가 나를 어찌 주라 부르느냐 / 매튜 미드(장호익 역) / 지평서원
- 16. 당신의 거둬냄 확실합니까(절판) / 스테판 차녹(이태복 역) / 지평서원
- 17.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 존 오웬(황을호 역) / 생명의 말씀사
- 18. 스펠전의 부흥 열망 / 찰스 스펠전(송용자 역) / 지평서원
- 19.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밀한 죄와 거룩 / 오바댜 세즈워(박현덕 역) / 지평서원
- 20. 돌아오는 배역자(The Returning Backslide) / 리차드 십스(이태복 역) / 지평서원
- 21.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성도의 사랑 / 토마스 빈센트(이태복 역) / 지평서원
- 24. 어둠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 / 토마스 굿윈 (박현덕 역) / 지평서원
- 25.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 / 토마스 브룩스 (이태복 역) / 지평서원
- 27. 복음의 진수로 나아가라 / 호라티우스 보나르(이태복 역) / 지평서원
- 29. 거룩한 길로 나아가라 / 호라티우스 보나르 (이태복 역) / 지평서원
- 3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 박순용 / 지평서원
- 34.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 토마스 굿윈(이태복 역) / 개혁된 신앙사
- 35. 칭의 교리의 진수 / 제임스 뷰캐넌(신호섭 역) / 지평서원
- 38. 성도의 견인 / 존 오웬(조은화 역) / 생명의 말씀사
- 42.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 / 솔로몬 스토타드(이순임 역) / 기독교문사
- 43. 시험당하는 자를 도우시는 그리스도 / 조지 헛필드(서문 강 역) / 지평서원
- 48. 하나님 앞에서 울다 / 제럴드 싯처(이현우 역) / 좋은 씨앗
- 54. 흔들리지 않는 믿음 / 엘리자베스 엘리엇(김유태 역) / 프리셋트
- 56.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 존 번연(허미순 역) / 기독교문사
- 57.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 제임스 더럼(송용자 역) / 기독교문사
- 58.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 존 오웬(박홍규 역) / 지평서원
- 59. 그리스도께로 이끌린 사람들 / 토마스 후커(성정훈 역) / 지평서원
- 62.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 존 파이퍼(전익우 역) / IVP
- 64. 황금홀 / 존 프레스톤(홍상은 역) / 지평서원
- 69. 경건생활 / 토마스 왓슨 / 생명의 말씀사

- 70. 구원얻는 믿음 / 데이비드 클락슨 / 지평서원
- 71. 살아 역사하는 믿음 / 데이비드 클락슨(송영의 역) / 지평서원
- 76. 예수님의 뜨거운 기도 / 존 번연 / 씨뿌리는 사람
- 81. 참된 회개 / 존 콜쿤 / 지평서원
- 90. 십자가 아래서 /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 지평서원
- 96.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 호라티우스 보나르 / 지평서원
- 100.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 토머스 왓슨 / 규장
- 101.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 지평서원
- 105. 하나님의 섭리 / 존 플라벨 / 규장
- 111. 말씀으로 승리하라 / 존 파이퍼 / IVP
- 113. 삶중 / 김남준 / 생명의 말씀사
- 114. 영성 이렇게 형성하라 / 이태복 / 지평서원
- 115. 제자도 / 존 스타트 / IVP
- 116. 그리스도의 임재 / 휴 마틴 / 지평서원
- 118. 기도의 영성 / 사무엘 리, 존 프레스턴 / 지평서원
- 130. 오직 은혜로 / 싱클레어 퍼거슨 / 지평서원
- 134. 하나님께 가까이 / 아브라함 카이퍼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142. 예기치 못한 여행 / 로버트 갓프리 / 지평서원
- 143.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보배로운 선물 /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 지평서원

교리

- 84. 거듭남의 본질 / 스테판 차녹 / 지평서원
- 93. 위기의 그리스도인 / 마틴 로이드 존스 / 지평서원
- 94.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 데이비드 클랏펠터 / 생명의 말씀사
- 95.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 존 파이퍼 / 부흥과 개혁사
- 104. 기독교 강요 set / 존 칼빈 / 기독교문사
- 108. 양심 실종 / 존 맥아더 / 부흥과 개혁사
- 112. 칼빈주의 / 조엘 비키 / 지평서원
- 139.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 싱클레어 퍼거슨 / 지평서원

교양

- 2. 세인트 앤드루스 칠인의 숭고한 경주 / 스투어트 피진 & 존 럭스버러(최태희 역) / SFC
- 46.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없을까? / 조나단 에드워드(백금산 역) / 부흥과개혁사
- 51. 존 오웬의 죄 죽이기(The mortification of sin) / 존 오웬(서문 강 역) / SFC

기독교고전

- 44.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 헨리 스쿠겔(모수환 역)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65. 균형잡힌 부흥론 / 조나단 에드워즈 지음(양낙홍 역) / 부흥과 개혁사
- 77. 존 번연의 대표작 모음 / 존 번연 / 씨뿌리는 사람
- 78.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 존 번연 / 씨뿌리는 사람
- 127. 은혜의 방식 / 존 플라벨 / 청교도신앙사

기독교사상

- 12. 경외함의 진수 / 존 번연(이태복 역) / 지평서원
- 13. 루터 저작선 중 「갈라디아서 주석」, 「그리스도인의 자유」, 「노예의지론」 / 존 딜렌버거(이형기 역)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83. 거룩하신 하나님 / 데이비드 웰스 / 부흥과 개혁사
- 87. 오래된 복음주의 / 이안 머리 / 부흥과 개혁사
- 98. 용기 있는 기독교 / 데이비드 웰스 / 부흥과 개혁사
- 124. 청교도의 소망 / 이안 머리 / 부흥과 개혁사

설교

- 22. 조지 물러 傳 / A.T. 피어슨(김진우 역) / 생명의 말씀사
- 23. 흡과 하나님 (칼빈의 흡기 강해) / 존 칼빈(서문 강 역) / 지평서원
- 36. 십자가, 승리의 복음 / 찰스 스펄전(송용자 역) / 지평서원
- 41. 와서 최고의 신랑 그리스도를 보라 / 조지 횃필드(서창원 역) / 지평서원
- 45. 복음잔치-오라, 강령하시는 그리스도 / 조지 횃필드(서창원 역) / 지평서원
- 61. 내 뒤편에 태인 십자가 / 토마스 보스톤(서문강 역) / SFC
- 73.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 박순용 / 생명의 말씀사
- 79. 참된 신자가 되라 / 조나단 에드워즈 / 씨뿌리는 사람
- 82.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 존 번연 / 씨뿌리는 사람
- 88. 낙망하는 내 영혼의 회복 / 크리스토퍼 러브 / 지평서원
- 89. 만입의 고백 "찬양" / 마틴 로이드 존스 / 지평서원
- 91. 영광스러운 부르심 / 리처드 십스 / 지평서원
- 99. 나를 기념하라 / 존 오웬 / 지평서원
- 123. 내게로 오라 / 존 번연 / 지평서원
- 126. 죽임 당하신 어린양 / 스테판 차녹 / 지평서원
- 135. 갈보리의 그림자 / 휴 마틴 / 지평서원
- 138. 오직 은혜입니다 / 박순용 / 부흥과 개혁사
- 145.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 존 에인절 제임스 / 청교도 신앙사

성령론

- 53.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 조나단 에드워즈(노병기 역) / 부흥과개혁사

신앙간증

39.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 / 조나단 에드워즈(양낙홍 역)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신앙인물

9. 성 어거스틴 참회록 / 성 어거스틴(김중웅 역)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30.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 / 루이스 베일리 (조계광 역) / 생명의 말씀사
32. 전능자의 그늘 / 엘리자베스 엘리엇(윤종석 옮김) / 복있는 사람들
33. 헨리 마틴의 생애와 일기 / 존 사전트(원광연 옮김)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37. 새뮤엘 러더포드 서한집 / 새뮤엘 러더포드(이강호 역)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47.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 손동희 / 아가페출판사
52. 하늘에 속한 사람 / 원형제(고석만역) / 홍성사
55. 18세기 영국의 영적 거성들 / 제이 씨 라일(송용자 역) / 지평서원
60. 로버트 맥체인 / 알렉산더 스메일(엄경희 역) / 지평서원
63.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랑한 사람들 / 에드나 거스너(조계광 역) / 생명의 말씀사
67. 청교도의 황태자 존 오웬 / 앤드류 톰슨(엄경희 역) / 지평서원
68. 조나단 에드워즈 - 삶과 신앙 / 이안 머레이(윤상문, 전광균 역) / 이레서원
72.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과 귀드 드 보레 / 테아 반 할세마(강변교회 청소년 학교 도서위원역) / 성약
74. 불의 전차, 그리고 그 후 / 러셀 w 렘지 / 라이트 하우스
75. 사무엘 루터포드 / 킹슬리 렌델 / 지평서원
80. 하웰 해리스 삶과 부흥소명 / 에드워드 모건 / 지평서원
85. 마틴 로이드 존스 평전 / 존 피터스 / 지평서원
97.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 조나단 에드워즈 / 복있는 사람
125. 완전한 순종 -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길 / 박광희 / 가나복스
128. 그리스도인의 경제 윤리 / 리차드 스틸 / 지평서원

영성훈련

3.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 토마스 두리틀(남정우 역) / 기독교 교문사
11. 그리스도인의 영성 / 존 오웬(조호영 역) / 보이스사
92. 분별력 / 존 맥아더 / 엔크리스토
119. 금식의 영성 / 토마스 보스톤 / 지평서원
120. 그리스도인의 성장 / 토마스 굿윈 / 지평서원

예배

28. 예배의 타겟을 복음에 맞추라 / 제리미야 버로우스(서창원, 최승락 역) / 진리의 깃발
132.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 브라이언 채플 / 부흥과 개혁사
144. 개혁주의 예배론 / 마이클 호튼 / 부흥과 개혁사

일반

- 86.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 옥성호 / 부흥과 개혁사
- 102. 복음을 부끄러워 하는 교회 / 존 맥아더 / 생명의 말씀사
- 106. 앤솔러지 / 마틴 로이드 존스 / 지평서원
- 107.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 박순용 / 부흥과 개혁사
- 110. 신비주의와 손 잡은 기독교 / 레이 훈겐 / 부흥과 개혁사
- 121. 타협할 수 없는 진리 / 마틴 로이드 존스 / 지평서원
- 122. 세상보다 나은 기독교 / 존 맥아더 / 생명의 말씀사
- 129. 예수님을 바라보라 / 아이작 암브로스 / 부흥과 개혁사
- 133.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 / 트레빈 왁스 / 부흥과 개혁사
- 141.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 / 타비티 안야벌리 / 부흥과 개혁사

자녀교육

- 49.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 / 제임스 제인웨이 & 코튼매더(송용자 역) / 지평서원
- 103. 내 어린 양을 먹이라 / 찰스 스펠전 / 지평서원

전도

- 36. 회심을 위한 불같은 외침 / 찰스 스펠전(송용자 역) / 지평서원
- 66. 양보없는 전도 / 윌 메츠거(조계광 역) / 생명의 말씀사
- 109. 복음과 개인전도 / 마크 데버 / 부흥과 개혁사
- 117. 전도, 그 이상의 축복 / 존 맥아더 / 소망사
- 136. 담대한 복음 전도 / 존 맥아더 / 생명의 말씀사

조직 신학

- 7. 리차드 백스터, 회심(回心) / 리차드 백스터(백금산 역) / 지평서원
- 8. 천국에의 초대(A Sure Guide to Heaven) / 죠셉 얼라인(이태웅 역) / 생명의 말씀사
- 14.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 / 마틴 로이드 존스(서창원 역) / 두란노
- 15. 하나님을 아는 지식 / 제임스 패커(정옥배 역) / IVP
- 40. 그리스도의 영광 / 존 오웬(서문 강 역) / 지평서원
- 131. 개혁교의학 / 헤르만 바빙크 / 부흥과 개혁사
- 140. 하나님을 아는 지식 1,2 / 스테판 차녹 / 부흥과 개혁사